



(왼쪽부터) 김도영, 김선빈, 박찬호, 광도규, 황동하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9일(현지 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2025 MLB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 7회말 타격을 시도하고 있다.

우승 후보였는데... 잇단 부상 악재에 울상짓는 KIA

야수진 쪽에서 김도영·김선빈·박찬호 돌아가며 부상
불펜 투수 광도규는 시즌 마감...황동하도 허리 다쳐

지난해 통합 우승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잇단 부상 악재에 표류하고 있다. KIA는 2024시즌 16승 19패를 기록해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다. 4월12일에는 최하위까지 처지기도 했다. KIA는 2024시즌 87승 2무 55패로 정규시즌 1위를 차지했고,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5시즌을 앞두고도 KIA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 겨울 전력 투수가 크지 않았다. 필승조로 뒀던 장현식이 프리에이전트(FA)가 돼 LG 트윈스와 4년, 총액 52억원에 계약하고 팀을 떠났지만, 트레이드로 공백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12월 키움 히어로즈에 현금 10억원과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

드,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구원왕 출신인 조상우를 데려왔다. 제임스 네일, 아담 윌러, 양현종이 1~3선발을 이루는 선발진이 탄탄했고, 지난해 구원왕인 마무리 투수 정해영도 버티고 있었다. 김도영을 비롯해 나성범, 최형우, 김선빈, 박찬호 등이 포진한 타선도 짜임새가 좋다는 평가였다. 우승 후보라는 평가 속에 야심차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팀 내 핵심 선수들이 돌아가며 부상을 당한 탓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월22일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2024시즌 최우수선수(MVP)인 김도영이 이탈했다. 김도영은 개막전에서 안타를 친 후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이 나왔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주전 유격수 박찬호는 3월25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도루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베테랑 2루수 김선빈은 3월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종아리에 통증을 느낀 뒤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필승조 좌완 투수 광도규는 왼쪽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아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야수 쪽에 공백이 커지면서 타선의 짜임새가 떨어진 KIA는 개막 이후 16경기에서 6승 10패에 그쳐 순위가 9위까지 처졌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박찬호가 4월5일 복귀하고, 김선빈도 지난달 18일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김도영도 한 달 넘게 치료와 재활에 매달린 끝에 4월25일 1군에 합류했다. 타선 완전체를 꿈꾼 것도 잠시였다. 김도영이 돌아오고 이틀 뒤인 4월27일 강타자 나성범이 부상을 당했다. 4월26일 광주 LG 트윈스전에서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낀 나성범은 오른쪽 종아리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아 최소 2주 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됐다. 불의의 사고까지 KIA를 덮쳤다. 황동하는 휴식일이던 지난 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원정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동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허리 부상을 당했다. 요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황동하는 최소 6주 동안 안정해야 한다. 재활 기간까지 따지면 사실상 전반기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선에서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나성범과 최근 불펜에서 선발로 보직을 전환한 뒤 7일 고척 키움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황동하의 이탈은 KIA에게 적잖은 손실이다. 잇단 부상 속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월 중순 KT, 두산에 상대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부등하는 듯 했던 KIA는 이후 3연패를 당하며 다시 주춤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어진 9연전 기간 동안 치른 7경기에서는 3승 4패에 머물렀다. KIA는 근심이 깊은 가운데 10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더블헤더를 치른다. 아담 윌러, 제임스 네일을 더블헤더 1, 2차전 선발 투수로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꿈꾼다. 이슬비기자

이정후, 12타석 연속 무안타
침묵...시즌 타율 0.287 하락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또 다시 침묵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 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필드에서 벌어진 2025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지난 8일 시카고 컵스전부터 3경기 연속 무안타다. 7일 컵스전에서 연장 11회 마지막 타석에 안타를 쳤던 이정후는 8일 컵스전에서 5타수 무안타, 10일 미네소타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주춤했다. 이날도 침묵한 이정후는 12타석 연속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93에서 0.287(150타수 43안타)로 내려갔다. 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미네소타 선발 조 라이언의 스트라이크존 한복판 직구를 노려쳤는데 범타가 됐다. 4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맞은 첫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7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서 미네소타 우완 투수 그리핀 잭스를 상대한 이정후는 4구째 스위퍼를 노려쳤지만,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정면으로 향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타선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미네소타에 1-2로 석패했다. 2연패에 빠진 샌프란시스코는 24승 16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에 머물렀다.

KIA 이범호 감독 “윤영철 14일 롯데전서 복귀...15일 선발은 고민”

황동하 부상 공백 윤영철로 메워... “복귀전서 70구 정도 생각”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이 2군에서 재조정을 마치고 돌아올 좌완 영건 윤영철의 복귀 전 투구수를 70개 정도로 정했다. 이 감독은 1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지는 2025 신한 솔베코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을 앞두고 “황동하가 선발 등판할 차레인 14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전에 윤영철을 선발 투수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시즌을 불펜 투수로 출발한 황동하는 윤영철이 부진을 이어가면서 선발 기회를 잡았고, 7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8일 인천 연수구 원정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부상을 당했고, 6주 이상 장기 이탈이 불가피해졌다.

이 감독은 일찌감치 윤영철로 빈 자리를 메우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프로 3년차를 맞은 윤영철은 올 시즌 초반 부진을 겪었다. 3경기에서 승리없이 3패만 떠안았고, 평균자책점이 15.88에 달했다. 지난달 18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2%이닝 2실점으로 흔들린 윤영철은 다음 날인 4월19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재조정에 들어갔다. 윤영철은 4월26일 롯데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서 등판해 5%이닝 7피안타 3실점을 기록한 후 실전에 나서지 않았다. 이 감독은 다소 실전 공백이 있는 윤영철에게 복귀전서 긴 이닝을 맡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 감독은 “10일에 더블헤더가 진행됐으면 윤영철에게 1이닝 정도 던지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더블헤더가 진행되지 않고 기회가 생

기지 않아 내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귀전에서 윤영철의 투구수는 70개 안저리로 생각하고 있다. 1, 2번 정도 던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투구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래 쉬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0구까지 던지게 할 것이 아니고, 4이닝 정도에서 끊을 생각이라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블헤더를 치르고, 10일 SSG전 선발 투수였던 아담 윌러가 투구수가 112개로 많았다. 15일 광주 롯데전에 투구수가 많았던 윌러가 나흘만 쉬고 등판하거나, 대체 선발을 기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감독은 “전날 5회를 마친 뒤 윌러에게 더 던질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다음 등판에 개수를 조금 줄여주기로 하고 6회까지 던지도록 했다”며 “윌러가 나흘을 쉬고 15일 롯데전에 나서게 되면 투구수를 줄여



줄 생각이다. 아니면 대체 선발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탬파베이 김하성, ‘60일 부상자 명단’ 이동...5월 말 이후 복귀
“6월 복귀...유격수 복귀 더 늦어질 수도”

어제 부상자로 재할증 중인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이 5월 말 이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탬파베이는 10일(한국 시간) 김하성을 60일 부상자 명단(IL)으로 이동시켰다고 발표했다. 등목 시점은 3월24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그는 5월23일부터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탬파베이는 40인 로스터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를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2021~2024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뛴 김하성은 지난해 8월19일 플로리다 로키스전에서 슬라이딩을 하다 오른 어깨를 다쳤고 결국 지난해 10월 수술대에 올랐다. 시즌을 마친 뒤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온 김하성은 탬파베이와 계약을 맺었고, 재활을 통해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초 4월 말 복귀를 목표로 했지만, 복귀 시점은 다소 늦춰졌다. 현지 언론은 “탬파베이 구단은 김하성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귀 시점을 6월 중순 이후로 늦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수술 집도의를 만나 ‘회복 양호’ 진단을 받은 만큼 그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단 역시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했지만, 그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다”며 “6월 복귀를 예상한다. 유격수 복귀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시스

‘사실상 1순위’ 페퍼행 웨더링튼 “엄마가 좋아서 우셨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서 전체 2순위로 페퍼저축은행 지명받아



여자배구 페퍼행 웨더링튼. (사진=KOVO 제공)

프로배구 2025~2026시즌 V-리그에서 필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사실상 1순위로

빅토리아와 재계약을 하면서 페퍼저축은행이 사실상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 장소연 감독은 웨더링튼을 선택했다. 184cm의 웨더링튼은 큰 키는 아니지만, 특유의 탄력과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페퍼저축은행에 지명된 웨더링튼은 “영광이다. 재능이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내가 뽑혀서 기분이 좋다. 내가 좋은 선수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내가 상위픽으로 불릴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다. 침착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등에서 뛰었던 웨더링튼은 V-리그에 대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K팝을 훈련 때 많

차등 확률 추첨으로 진행했다. 1순위 지명권을 얻은 IBK기업은행이 단차